

LDPE, 3월 톤당 130만원 “고시”

에틸렌 275달러 폭등 ... 2003년 11월 이후 저가 내수가격 정상화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Film 그레이드의 가격이 3월 톤당 130만원으로 10만원 추가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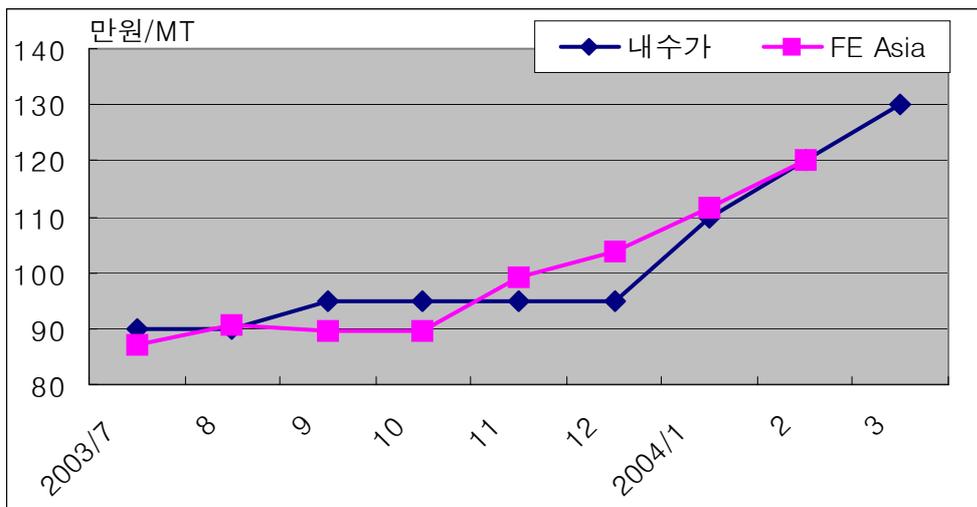
LDPE 생산기업들의 내수가격 인상원인은 원재료인 에틸렌(Ethylene) 가격이 2004년에 2003년 평균 FOB Korea 톤당 452달러에서 275달러가 폭등해 727달러에 거래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L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원재료인 에틸렌이 5월말까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LDPE 생산기업들도 원료가격 상승분을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LDPE 가격인상으로 수요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산기업 관계자는 “석유화학의 흐름상 현재 가격이 높은 시점으로 파악되며, 가격하락 시점에서는 어차피 입장이 상호 바뀌는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LDPE를 비롯한 합성수지 수요기업 중 대형수요처들은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자금 압박과 제품가격인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문을 닫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소형 거래처는 기업운영에 상당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LDPE 가격추이(2003. 6 - 2004)



LDPE는 2003년 11월부터 국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업들이 내수시장 붕괴를 우려해 가격인상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LDPE 내수가격을 130만원으로 Announce된 것은 2003년 11월 이후 계속적으로 국제가격에 비해 낮게 거래됐던 LDPE 내수가격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합성수지 생산기업들은 LDPE를 비롯한 LLDPE(Low-Density Linear Polyethylen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및 PP(Polypropylene) 내수가격을 국제가격과 비교해 낮게 거래돼왔던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 톤당 10만원씩 인상해 Announce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6>